

〈譯註〉

『舊唐書』·『新唐書』李多祚傳 등 譯註

吳 佩 佩 (우페이페이) *

〈목차〉

1. 『구당서』 권109, 이다조전
2. 『신당서』 권110, 이다조전
3. 李多祚 墓誌銘

1. 『구당서』 권109, 이다조전¹⁾

이다조는 대대로 靺鞨酋長이 되었다. 이다조는 날래고 용감하며 활을 잘 쏘았고, 意氣가 격동하여 활력이 있었다. 젊어서 軍功으로 右羽林軍大將軍에 오르고[歷位] 前後로 禁兵을 관장하여 北門에서 宿衛한 것이 20여 년이었다.

神龍 연간 초[신룡 원년(705년) 정월]²⁾에 [재상] 張柬之³⁾가 장차 張

*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

1) 『구당서』 권109, 이다조전, 中華書局, 3296~3297쪽.

2) 『구당서』 권7, 中宗本紀, 신룡 원년 정월 조, 135쪽;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壬午朔, 赦天下, 改元[神龍]. …… 張柬之·崔玄暉與中臺右丞敬暉·司

易之 형제를 주살하기 위해 이다조를 끌어들여 그 일을 획책하고자 하여 말하길 “將軍이 北門에 있는 지 몇 년인가?”라고 묻자 답하길 “30년이다”라고 하였다. 장간지가 말하길

장군은 종을 치며 鼎을 나열하여 놓고 먹고(擊鍾鼎食: 귀족이나 부호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형용함), 金章과 紫綬를 차며 當代에 존귀하고 군주의 총애를 받아 지위가 武臣의 최고가 되었는데, 어찌 大帝(즉 高宗)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자 답하길 “그렇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장군은 대제의 큰 은혜를 느낀다면 능히 보답할 수 있겠는가? 대제의 아들이 지금 東宮에 있으나 역적 장역지 형제가 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朝夕으로 위태롭게 핍박을 받고 있다. 宗社의 운명이 장군에게 달려있는데, 진실로 능히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자 이다조가 말하길 “진실로 王室을 위한 것은 오직 相公이 시키는 것에 따르고 끝내 妻子의 性命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로 天地의 神祇에게 맹서하니 詞氣가 격앙되고 정의로운 기운이 얼굴에 나타났다. 마침내 장간지 등과 함께 모의하여 장역지 형제를 주살하였고⁴⁾ 功으로 遼陽郡王·食實封800戶로 進封

邢少卿桓彦範·相王府司馬袁恕己謀誅之. 東之謂右羽林衛大將軍李多祚曰, …”(中華書局, 6579~6581쪽). 한편 『신당서』 권4, 중종본기, 신룡 원년 정월 조에는 “張東之等以羽林兵討亂. 甲辰, 皇太子監國, 大赦, 改元. 丙午, 復于位, 大赦, …… 相王旦爲安國相王·太尉·同鳳閣蘭臺三品. 庚戌, 張東之·袁恕己同鳳閣蘭臺三品, 崔玄暉守內史, 敬暉爲納言, 桓彦範守納言. 二月甲寅, 復國號唐”(中華書局, 106쪽)라고 하는데, 개원의 날짜는 『자치통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변의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林美希 저, 정병준 역, 『唐代 前期 宮中政變을 둘러싼 北衙의 동향』, 『동국사학』 77, 2023, 481~483쪽 참조.

3) 『신당서』 권4, 則天皇后本紀, 長安 4년(704) 10월 조, “判秋官侍郎張東之同鳳閣鸞臺平章事”(105쪽).

되고 또 그 아들 [李]承訓은 衛尉少卿에 배수되었다.

그 해 장차 太廟에 제사지내려 할 때 특별히 이다조에게 安國相王(훗날의 睿宗)⁵⁾과 함께 황제 수레에 올라 양쪽에서 시봉하게 명하였다. 監察御史 王覲이 疏를 올려 간하여 말하길

생각건대 廟에 祔(즉 신주를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와 함께 모시고 습祀)하는 의례는 祖先을 존경하고 모시는 것으로 엄숙한 행사의 의식인데 어찌 오직 친함과 덕행을 우선(厭)하는지요. 엮드려 보건대 恩敕으로 안국상왕과 이다조를 동승하게 하였는데, 이다조는 夷人으로서 나라에 공을 세운 것은 그에 맞게 寵爵을 더한 것으로 가하다. 어찌 마땅히 至尊을 가까이서 시봉하며 황제의 동생과 함께 나란히 모시며 우리의 군주와 함께 수레를 탈 수 있는지요? 진실로 萬方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 두렵다. 옛날 文帝가 趙談을 동승시키자 [袁]盎이 수레 앞에 엮드려 말하길 “臣이 듣건대 天子와 함께 6척의 수레를 타는 자는 모두 천하의 호걸·영웅이다. 지금 漢에 비록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도 陛下가 홀로 어찌 刀鋸(즉 궁형)를 받은 자와 함께 타시는가”라고 하자 이에 물리치고 내리게 하였다. 이다조는 비록 조담의 허물은 없지만, 또한 卿相의 지위가 아니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굳게 사양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어찌 나라에 良輔가 없고 또 그 사람이 없겠는가. 史官이 적어 후세에 보이기 바라오. 어찌 원앙이 강하게 간한 것을 홀로 신이 미치지 못하겠는가. 다만 폐하께서 자세히 살펴 택하시오.

4) 『신당서』 권4, 則天皇后本紀, 장안 5년(705) 정월 조, 105쪽 등.

5) 『구당서』 권7, 중종본기, 신룡 원년 정월 조, “以并州牧相王[李]旦及太平公主有誅易之兄弟功, 相王加號安國相王, 進拜太尉·同鳳閣鸞臺三品, 公主加號鎮國太平公主, 仍賜實封, 通前滿五千戶”(136쪽); 『신당서』 권4, 중종본기, 신룡 원년 정월 2월 조, “辛未, 安國相王旦罷”(106쪽).

라고 하자 황제가 왕적에게 말하길 “이다조는 비록 夷人이지만, 그 공적에 따라 心腹으로 삼았으니 특별히 수레에서 시봉하게 하였다. 卿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신룡 3년(707) 7월] 節愍太子 [李重俊]⁶⁾이 武三思를 죽일 때⁷⁾ 이다조는 羽林大將軍 李千里 등과 병사를 이끌고 따랐다. 태자가 이다조에 게 먼저 玄武樓 아래로 가게 하였는데, 이는 황제가 무삼사를 죽인 이유를 물으면 마침내 병사를 거두어 싸우지 않기를 바란 때문이다. 그때 宮闈令 楊思勗이 누각 위에서 황제를 시봉하면서 그 선봉을 막아내길[拒] 청하였다. 이다조의 사위인 羽林中郎將 野呼利는 先軍總管이었는데, 양사육이 칼을 빼어 죽이자 병사들이 크게 무너졌다. 이다조는 순식간에 左右에게 살해되고 그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가족은 籍沒되었다.

睿宗이 [唐隆 원년(710) 6월]⁸⁾ 즉위한 후 制를 내려 말하길 “충성으로 나라에 보답한 것은 典冊에 칭송한 바이다. 義에 분격하여 헌신하니 名節이 전한다. 그러므로 右羽林大將軍·上柱國·遼陽郡王 이다조는 三韓의 貴種이고 百戰의 영웅이다. 禁營에서 은총을 입었으니 곧 마음을 王室에 두고 충성과 신의를 따랐으나 도리어 주살되고 말았다. 神明에 의지하여 거듭 姦慝을 제거하였으니 영구히 아름다운 업적을 기록하고 크게 褒崇

6) 『구당서』 권86, 中宗諸子, 節愍太子李重俊傳, 2837~2839쪽; 『신당서』 권81, 中宗諸子, 節愍太子李重俊傳, 3595~3596쪽 등.

7) 정병준, 「당에서 활동한 백제유민」, 『백제유민들의 활동(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297~298쪽; 任士英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푸른역사, 2016, 128~130쪽 등 참조.

8) 『자치통감』 권207, 景雲 원년 6월 조, “壬午, 中宗崩魚神龍殿, … [甲申]皇后臨朝攝政, 赦天下, 改元唐隆, 進相王旦太尉, … 庚子, 晡時, [李]隆基微服與[劉]幽求等入苑中, [胡三省 注: 唐禁苑在皇城之北, 苑城同書二十七里, 南北三十里, 東抵霸水, 西連故長安城, 南連京城, 北枕渭水] … 韋后惶惑走入飛騎營, 有飛騎斬其首獻於隆基. … 睿宗即位, 御承天門, 赦天下”(6642~6649쪽); 同 7월 조, “己巳, 赦天下, 改元[景雲]”(6652쪽).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히 사후의 영예를 추증하여 生前의 命을 회복시킨다. 가히 舊官을 돌려주고 그 妻子를 사면[宥]한다”라고 하였다.

2. 『신당서』 권110, 이다조전⁹⁾

이다조는 그 선조가 靺鞨酋長이며 黃頭都督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中國으로 들어오자 世系가 아득해졌다. 이다조에 이르러 날래고 용감하며 활을 잘 쏘았고 軍功으로 여러 차례 승진하여 右鷹揚大將軍¹⁰⁾이 되었다. 黑水靺鞨을 토벌하면서 그 渠長을 유인하여 성대하게 주연을 베풀고 취한 틈을 타 참살하고 그 무리를 격파하였다. 室韋와 孫萬榮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다조가 諸將과 함께 나아가 토벌하고 공로로 右羽林大將軍에 임명되어 北門 衛兵을 통솔하였다.

張柬之는 장차 二張(즉 張易之 형제)을 주살하려 하였는데, 이다조가 평소에 感慨하여 義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겼다. 이에 [이다조에게] 조용히 말하길 “將軍이 北門에 있는 지 몇 년인가?”라고 묻자 대답하길 “30년이다”라고 하였다. 또 장간지가 말하길 “장군은 鼎을 나열하여 놓고 먹고 當世에 貴重하게 되었는데, 大帝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자 이다조는 눈물을 몇 줄기 흘리며 말하길 “죽어도 잊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장간지가 말하길 “장군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알 것

9) 『신당서』 권110, 이다조전, 中華書局, 4124~4126쪽.

10) 『구당서』 권42, 職官志1, “光宅元年(684)九月, … 左右驍衛爲左右威衛, 左右武衛爲左右鷹揚衛, 左右威衛爲左右豹[韜]衛, 左右領軍衛爲左右玉鈐衛, 左右金吾衛依舊”(1789쪽); 『唐六典』 권24, 左右武衛 條, “光宅元年開爲左右鷹揚衛, 神龍元年(705)復舊”(中華書局, 620쪽).

이다. 지금 東宮에 계신 이는 대제의 아들인데, 은총을 받은 자들이 조정을 농단하고 宗社를 위태롭게 핍박하고 있다. 國家의 흥망이 장군에 달려 있는데, 장군은 진실로 뜻이 있는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일 것인가”라고 하니 답하여 말하길 “만약 王室을 위한 것이면 오직 公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천지에 스스로 맹서하였는데, 말의 기운이 굳세고 단호하니 장간지가 마침내 책모를 결정하였다. 敬暉·李湛을 右羽林將軍으로 삼아 禁兵을 총괄하게 명하고 이다조·王同皎와 함께 태자에게 청해 玄武門에 이르러 빗장[關]을 부수고 들어갔다.¹¹⁾ 長生殿으로 가서 武后에게 아뢰길 “諸將이 逆臣 易之·昌宗를 주살하였는데, 大謀가 누설될 것을 우려하여 감히 미리 奏하지 못하였다. 머리를 조아려 죽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무후는 병으로 누워있었는데, 李湛을 돌아보며 말하길 “나는 [네] 父子에게 박하게 하지 않았는데, 너도 이에 참여하였는가?”라고 하였다.

中宗이 복위하여 이다조를 遼陽郡王·食實800戶에 봉하고 아들 [李]承訓을 衛尉少卿으로 삼았다. 이담은 大將軍으로 승진하고 趙國公·食實500호에 봉해졌다. 황제가 太廟에 제사지낼 때 특별히 이다조에게 조서를 내려 相王과 함께 수레에 올라 양쪽에서 시봉하게 하였다. 감찰어사 王覲이 이다조는 夷人이어서 비록 공이 있다고 해도 수레에 함께 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황제가 말하길 “짐이 심복으로 삼았으니 卿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崔玄暉 등이 죄를 짓자 이다조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우려하여 곁으로 韋氏와 가까이 지냈다. 節愍太子가 武三思를 주살할 때 이다조는 成王 [李]千里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먼저 玄武樓 아래에 도착하여 무

11) 『자치통감』 권207, 신룡 원년 정월 조, “[王]同皎扶抱太子上馬, 從至玄武門, 斬關而入. … 太后驚起, … 太后見太子曰, ‘乃汝邪? 小子既誅, 可還東宮’”(6580쪽).

삼사를 주살한 사정[狀]을 자세히 말하고 병사를 멈추게 하여 싸우지 않았다. 宮闈令 楊思勗이 바야흐로 황제를 시봉하고 있었는데, 즉시 칼을 뽑아 그 사위인 羽林中郎將 野呼利를 참하자 병사들이 그로 인해 무너져 흩어지고 이다조는 그 부하에게 살해되었으며 두 아들 역시 해를 입었고 그 집안은 籍沒되었다. [예종] 景雲 초에 官爵을 追復하고 家屬을 사면[宥]하였다.

3. 李多祚 墓誌銘¹²⁾

大唐故鎮軍大將軍行右羽林軍大將軍上柱國遼陽郡王食恒州實封八百五十戶封王墓誌銘.

王諱多祚, 蓋州人也. 忠誠久著, 功績遠稱, 列代班師, 封爵所賴. 曾祖訥, 烏蒙州都督, 祖利, 烏蒙州都督. 父辨, 烏蒙州都督, 贈右武衛將軍. 王以神龍三年七月五日薨于長安, 春秋五十有四. 嗚呼哀哉! 但享年不永, 海內同嗟. 卽以先天二年歲次癸丑九月壬戌朔二十四日乙酉, 遷葬于洛州河南縣伊訥鄉之平原, 禮也. 嗣姪承風, 女尼意滿等, 崩天靡訴, 畢地無追, 恐陵谷推遷, 紀德音于泉路. 嗚呼哀哉! 何其罔極.

大唐 故 鎮軍大將軍·行右羽林軍大將軍·上柱國·遼陽郡王·食恒

12) 정확한 명칭은 「大唐故鎮國大將軍行右羽林軍大將軍上柱國遼陽郡王食恒州實封八百五十戶封王墓誌銘」이다. 즉 李獻奇·郭仁強 編著, 『洛陽新獲墓誌』, 文物出版社, 1996, 53쪽(탁본), 232쪽; 張乃翥, 「洛陽龍門山出土的唐李多祚墓誌」, 『考古』 1999-12, 77~78쪽; 『全唐文補遺』 6, 三秦出版社, 1999, 383쪽; 『全唐文新編』 21, 吉林文史出版社, 2000, 14886쪽 등 참조. 관련 연구로는 李長莉, 「唐靺鞨將領李多祚考論」,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林澤杰, 「李多祚與八世紀初唐政局之變」, 『唐都學刊』 2023-1 등이 있다.

州實封850戶 封王 묘지명

왕의諱는 多祚이며 蓋川¹³⁾人이다. 충성이 오랫동안 드러났고 공적이 멀리까지 칭송되었으며 代를 이어서 군대를 통솔하고[班師] 封爵을 얻게 되었다. 증조부 [李]訥은 烏蒙州都督이었고, 조부 [李]利도 烏蒙州都督이었다. 부친 [李]辨은 烏蒙州都督·贈右武衛將軍이었다. 王(즉 이다조)은 [中宗] 神龍 3년(707) 7월 5일 長安에서 죽으니 나이가 54세였다. 오호 슬프구나! 다만 누린 삶이 오래지 못하였으니 海內가 함께 탄식하였다. 이어서 [玄宗] 先天 2년(713) 癸丑 해 9월 壬戌朔 24일 을유일에 洛州河南縣 伊汭鄉의 平原에 옮겨 장사지내니 예에 맞았다. 嗣姪 承風과 비구니인 딸 意滿 등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崩天]을 호소할 데가 없고 땅 끝까지 가도 뒤쫓을 수 없다. 陵谷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德音¹⁴⁾을 저승길[泉路]에 적는다. 오호 슬프구나! 얼마나 罔極한 일인가.

13) 張乃翥, 「洛陽龍門山出土的唐李多祚墓誌」, 77~78쪽; 林澤杰, 「李多祚與八世紀初唐政局之變」, 22~23쪽에서는 '川'이 아닌 州로 판독하였다.

14) 『구당서』 권109, 이다조전, “睿宗即位, 下制曰, ‘以忠報國, 典冊所稱, 感義捐軀, 名節斯在. 故右羽林大將軍·上柱國·遼陽郡王李多祚, 三韓貴種, 百戰餘雄. 席寵禁營, 乃心王室. 仗茲誠信, 翻陷誅夷. 賴彼神明, 重清姦慝, 永言徽烈, 深合褒崇. 宜迫歿後之榮, 以復生前之命. 可還舊官, 仍有其妻子’”(3297쪽).